



사단
법인

한국양돈연구회

‘ASF&불확실성과 기회의 한돈산업 생존전략’ 세미나 성료 - 한돈산업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과 농장 사례 및 기술정보 나눠

(사)한국양돈연구회

(회장 권동일)가 지난 2월 19일 KT대전인재개발원 소강당에서 ‘제19회 양돈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ASF&불확실성과 기회의 한돈산업 생존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한돈산업이 현재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과 좋은 농장 사례 및 기술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ASF, FMD 등 해외 악성 전염병의 현황(김현일 대표이사 / (주)옵티팜), △PSY 30두, 생산비 3,200원 도전 사례(임상우 대표 / 하늘애GP), △다산의 덴마크 양돈 - 모돈, 생시체중, 저체중돈 관리(에스퍼 라센 컨설턴트 / 브리더스 오브 덴마크), △우수 농장경영 사례 - 품질 최우수 태원농장을 중심으로(이창민 팀장 / 부경양돈농협), △ASF 위기와 한돈산업의 변화(이일석 이사 / (주)카길애그리퓨리나)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 농장 성적으로 위기를 타개한 농장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날 에스퍼 라센 컨설턴트는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여 피그진코리아(주)의 김성훈 대표가 대신 자돈과 모돈의 관리 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부경양돈농협의 이창민 팀장은 수익만 생각하는 양돈이 아닌 최종 소비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고품질의 돈육 생산을 위해 다년간 노력을 경주한 태원농장의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양돈 경영 철학이 농장의 생산성 향상까지 이어진 긍정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하늘애GP의 임상우 대표는 만만치 않은 시장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관리, 세심한 모돈관리, 성공적인 다산성 모돈의 도입을 통해 PSY 30두, 생산비 3,200원에 도전한 하늘애GP의 농장관리 비결을 소개해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김현일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돼지열병(CSF)바이러스 항원이 존재하는 국가로 농장 발생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일석 이사는 ASF에 의한 한돈산업의 위기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려면 2년 이상 75% 이상을 잡아야 하는 만큼 농장의 보다 꼼꼼한 차단방역과 함께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대폭 감소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